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533>

JCCT 2024-11-65

북한의 대남 인지전에 관한 연구: 재귀통제와 3전(三戰)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s Cognitive Warfare against South Korea: Focusing on Reflexive Control and Three Warfare

박장우*

Jang-Woo Park*

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의 재귀통제와 중국의 삼전(三戰)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 인지전 수행 능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지전은 적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최근 국제 분쟁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구 결과,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인지전 전략을 모방하여 사이버 공격, 심리전, 허위정보 유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남 인지전을 수행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 신설, 정보 수집 및 분석 강화, 국민 대상 교육 확대, 적극적 대응 전략 수립, 국제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인지전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안 연구와 관련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주요어 : 인지전, 북한, 재귀통제, 삼전(三戰), 대남전략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North Korea's cognitive warfare capabilities against South Korea based on Russia's reflexive control and China's Three Warfare strategy, and to derive implications thereof. Cognitive warfare, a new form of conflict that aims to distort the enemy's decision-making by influencing their cognitive processes, has gained prominence in recent international dispute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North Korea has both the capability and intention to conduct cognitive warfare against South Korea, emulating strategies from Russia and China. This includes various means such as cyber attacks, psychological warfare, and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To counter these threats, the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establishing a dedicated national-level organization, enhancing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capabilities, expanding public education on cognitive warfare, developing proactive response strategie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raising awareness about the threat of North Korea's cognitive warfare and emphasizes the need for systematic preparedness. It calls for further research on specific countermeasures and the development of relevant policies to effectively address this emerging security challenge i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Cognitive Warfare, North Korea, Reflexive Control, Three Warfare, Anti-South Strategy

*정회원, 한남대학교 박사과정 (제1저자)
접수일: 2024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24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7일

Received: September 30, 2024 / Revised: October 28, 2024

Accepted: November 7, 2024

*Corresponding Author: pjw12800@naver.com

I. 서론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양국이 비물리적 수단인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와 달리, 이번 전쟁에서는 러시아의 재귀통제 기반 하이브리드전 효과가 미미했던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자국민, 나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지전을 수행하여 국제적 지지와 국민 결속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러시아와 대등한 수준에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김종하 외(2021)[1]는 "동일한 규칙 내에서 강자가 이기는 것이 분쟁의 통상적인 양상이나, 최근 분쟁에서는 강자가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인지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인지전 사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젤린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의 대응이다. 러시아와 중국 관영매체가 '젤린스키 이미 탈출'이라는 허위 보도를 내보냈을 때, 젤린스키 대통령은 직접 트위터를 통해 키이우 시내에서 국민의 항전의 의지를 고양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그는 가짜뉴스를 일거에 차단하고 지도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적 지지 획득에 성공했다[2].

현대 군사작전에서는 적의 군사력 우위보다 국내의 여론과 국민적 지지 자체가 전쟁 승리를 위한 결정적 공격목표가 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쟁에서 물리적 수단에 의한 파괴보다 비물리적 수단의 활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정보당국의 개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주민들의 인지영역(Cognitive Domain)을 공략하여 전투 없이 점령한 사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손자병법 제3권 모공(謀攻)에서 언급된 "先勝求戰"(선승구전), "不戰勝"(불전승)의 원리가 현대전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3].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용하여 정보 조작, 왜곡, 그리고 내러티브(Narrative)와 프로파간다(Propaganda) 등을 통해 인간의 인지 영역을 공략하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재귀통제, 중국의 삼전(三戰) 전략으로 구체화되며, 이들 국가와 테러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디지털 회색지대 전략을 활용한 인지전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에 예상되는 북한군의 인지전에 대한 대비가 한국의 사회적 국익(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군이 러시아의 재귀통제와 중국의 삼전 전략을 모방하여 새로운 전략과 작전을 개발할 것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지전의 정의

현대의 인지전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정보화 기술 및 인터넷 기반체계 발전과 함께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인지전이 인지심리학의 발전과 인터넷(컴퓨터)의 발달로 전쟁과 정치영역에 접목시킨 사례이다. 최현호(2023)는 이러한 인지전은 중국·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심리영역에서의 전투와 관련된 개념을 연구하면서 등장했다고 주장하였다[4].

인지전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학술논문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인지전은 정보의 전달, 교란,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인식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지전은 기존 심리전과 선전·선동, 정보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보다 심화되고 진일보한 개념이다.

클라버리와 크루젤(2022)은 인지전을 "상대의 인지 과정을 변화시키고 정신적 편견이나 반사적 사고 등을 이용하여 사고의 왜곡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방해함으로써 개인 및 집단적 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으로 정의하였다[5]. NATO는 2020년 인지전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대중 및 정부의 행동에 영향(influencing)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또는 정부의 행동 및 체도를 불안정화(destabilizing)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부 주체가 여론을 무기화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인지전의 목적은 "적에게 우리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 보다 "적이 우리의 목표를 저해하거나, 억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게 만들어 적의 내부에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

인지전이 현대에 들어 대두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인공지능, 인지혁명, 인지적 폭력, 인지편향 등의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인지란 모든 형태의 지식을 일컫는 용어로서 인식과 사고작용(지각, 상상, 추리, 판단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지각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신적 과정을 인지과정이라고 한다. 인지전의 기반인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이란 주의 집중, 기억, 추리, 상상, 예상하기, 계획하기, 의사결정, 문제 해결, 아이디어의 전달 등과 분류나 해석과 같은 주변 세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관련된 처리 과정이 포함된 다[7].

최현석(2011)은 "생각이 감정을 바꾼다"라는 인지혁명을 제시하였다[8]. 이러한 인지혁명은 정보적인 세상을 가능하게 했다. 인지혁명을 통해 인지주의가 학문적인 틀로서 구현된 것이 종합적이고, 학제적 과학인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며, 이 인지과학의 핵심학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이다. 인지전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지적 폭력이란 인간의 인지와 인지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개입, 조작, 통제, 손상, 마비 등의 폭력을 가하여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비살상 폭력을 말한다. 인지전은 바로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 인지혁명에 의해 대두되었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인지적 폭력 등을 인간의 인지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인지전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인지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비논리적인 추론을 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은 보고싶은 것만 보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만이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사실은 가짜일 수 있다.

김장무(2020)는 인지편향을 인간의 두뇌가 개개인의 경험과 선호도의 필터링을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에 야기되어지는 객관적 사고의 한계라고 하면서 "다양한 인지편향으로 인해 국가의 정책판단에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탈인지 편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9]. 또한, 하민수(2016)는 인지조작을 수행하는 인지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지편향과 인지해킹이 사람들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NATO는 Innovation hub Warfighting 2040 Project Report에서 미래의 분쟁은 적대세력이 점점 전쟁의 문턱을 넘지 않은 전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적대세력들은 전쟁의 문턱을 시험하고 NATO가 5조 발동 전에 수용 가능한 행동을 드러내는 베타 끝 전술을 연습하고 우발적으로 전쟁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11].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면서 미래의 분쟁은 외교·정보·군사·경제·금융(DIMEFIL)을 통한 느린 전쟁 수행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비전통적이고, 자주 중단되며, 매우 비대칭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가 되어 정보전과 인지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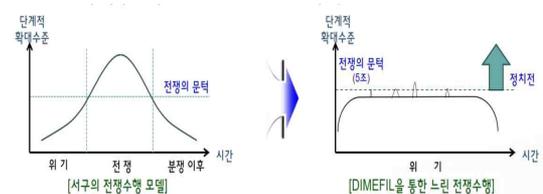


그림 1. 전쟁수행 모델

Figure 1. Warfare Model

출처: Innovation hub Warfighting 2040 project report

NATO는 2020년 인지전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인지전의 목적은 "적에게 우리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 보다 "적이 우리의 목표를 저항하거나, 억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게 만들어 적의 내부에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12]. 백스(Backes)와 스왑(Swab)은 인지전에 대해 "목표 대중들의 사고 방식을 정보수단을 통해 변경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13]. 또한, 츠지에 홍과 츠웨이 홍(2020)은 인지전과 사이버전, 정보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모두 영향작전(공작)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인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지전만이 무기화된 신경과학을 다양한 물리적 수단과 비물리적 수단들과 통합하여 인간의 두뇌 통제에 중점을 둔 작전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14].

우리나라에서는 인지전에 대한 개념이 교리적,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육군에서는 「육군비전 2050」(2022)에서 인지영역(Cognitive Domain)은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영역으로 지각, 인식,

이해력, 신념, 가치있는 영역이며 감각생성의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하였고, 인지전(Cognitive Warfare)은 인지영역을 이용해 인식을 변화시켜 상대방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거나 정보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전쟁양상이라고 정의하였다[15]. 또한, 2022년 육군대학에서 개최했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연구 세미나에서 크루젤(2021)의 논문을 인용하여 '전·평시에 합법적이고 다양한 수단 및 방법을 활용하여 국제사회, 적군, 아군, 자국민 등의 인지 영역에 접근, 자국이 의도한 대로 상대가 생각(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변화시키는 전쟁 양상'이라고 정의 하였다[16]. 김상현(2022)은 "인지전의 공격 양상과 대응에 관한 연구: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인지 영역에 대한 공략을 인지전(cognitive warfare)으로 규정하였고[17], 김진호 등(2023)은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 인지전 발전 방향: 인지전 개념, 전개양상,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라는 논문에서 기존 국가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인지전에 대한 개념과 유사 개념인 정보전, 심리전 등 논의를 통해서 국가 및 군사 전략적 수준의 인지전 개념을 목표, 방법, 수단으로 구체화하였다[18]. 조상근(2021)은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인지전 사례연구"라는 논문에서 인지전은 SNS를 활용한 군사작전의 주요수단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19].

2. 인지전과 유사개념인 심리전, 사이버전, 정보전과의 차이점

인지전은 군사적으로 승리하기만을 위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 정책측면, 군사전략 수준에서 주로 수행한다.

인지전과 심리전의 차이점은 인지전이 특정 사안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인지편향 등 인지장애가 발생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반면에 심리전은 왜곡된 인식, 두려움을 유발하여 상대의 신념에 영향을 주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김진호, 최영찬(2023)은 인지전과 정보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인지전이 정보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통제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지만 정보전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목표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20].

Tzu Chieh Hung·Tzu Wei Hung(2020)은 인지전과 사이버전의 차이점은 '사이버전'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같은 적의 사회 인프라를 공격한다거나 실제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탈취하므로 인지전과 상이 하다고 분석하였다[21]. 사이버공간에서 수행되는 심리전을 사이버심리전이라 하며, 최근 심리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사이버공간이다.

인지전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이라 할 수 있다. 정보작전이란 육군 야전교범 정보작전(2018)에서는"군사작전간 아군의 의사결정체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적의 의사결정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작전과 협력하여 정보작전관련능력(IRC)을 통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2]. 인지전과 정보작전관련능력을 통합하는 것은 유사하나 인지전은 상대방(적, 아군, 주민, 세계인 등)의 뇌를 목표로 하는 전쟁이지만 정보작전은 정보 환경(물리적·정보적·인지적 차원)에서 아군과 적군의 의사결정체계를 공격하는 차이점이 있다.

츠지이 흥 와 츠웨이 흥(2020)은 인지전과 사이버전, 정보전, 하이브리드전 등 다른전쟁의 개념적 관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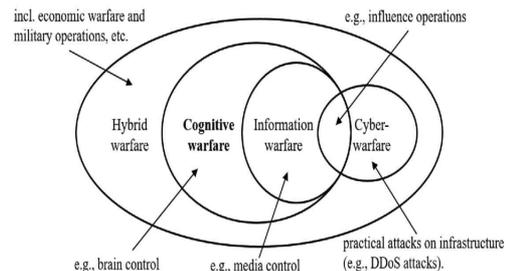


그림 2. 인지전과 다른 전쟁과의 개념적 관계
Figure 2.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Warfare and Other Types of Warfare
출처: Tzu-Chieh Hung ·Tzu-Wei Hung,(2020), p. 2.

김진호·최영찬(2023)은 Pocheptsov(2018)의 논문을 인용하여 "인지전이 외교, 경제, 군사 등 다른 수단과 통합되어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며, 하이브리드전을 인지전 보다 더 큰 개념으로 주장"하였다[24]. 인지전은 하이브리드전의 일부로 사이버전과 정보전, 심리전을 포함하되 사람의 뇌를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인지전은 유사 개념인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등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최근 문명사회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 모바일을 활용한 1인 미디어 시대 등에 의해 과거에도 있었으나 더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독자적인 전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러시아와 중국의 인지전 분석

1. 러시아의 인지전 ‘재귀통제’

러시아에서 재귀통제 개념은 레오니드 베르 레페브르(Lev Dmitrievich (Leonid) Lefebvre)가 창안하였다. 재귀통제란 “적의 상대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1956년 이후 러시아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인공두뇌학)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다[25]. 레페브르는 게임이론 및 인간 심리 통제와 같은 분야의 사이코사이버네틱스(psycho-cybernetics) 등을 연구했다. 그는 재귀통제가 사이코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이 항상 최소한의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재귀통제는 한 인간 또는 사회 전반의 의식과 심리 속에서 존재하는 이미지를 변형시켜 한 개인 혹은 사회 전반의 ‘내면세계’에 존재중인 ‘실제 세계’를 조작, 도발, 위장 등을 통해 ‘또 다른 세계’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소련군의 재귀통제 군사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군사 심리학자 미하일 이오노프(Mikhail Ionov)가 실시하였다. 재귀통제는 대중의 의식들을 변화시켜 국가의 전체 심리, 정신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적국의 대중을 공자에게 이롭게 행동토록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공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상대가 행동토록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법으로 압박을 통해서 공포감 유발하고, 특정 상황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적의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영향, 적의 의사결정 타이밍에 영향의 4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26].

재귀통제는 2000년대 이후에 러시아의 르게이 코모프(Sergei Komov)에 의해 더욱 구체화 되었다. 코모프는 재귀통제가 적국의 정치지도부, 군부, 사회단체조직들의 인식과 감정, 의식을 조작하는 ① 주의산만(distracton), ② 과부하(overload), ③ 마비(paralysis), ④ 고갈(exhaustion), ⑤ 각색(staging), ⑥ 분열(disintegration), ⑦ 진정(calming), ⑧ 협박

(intimidation), ⑨ 도발(provocation), ⑩ 제안(suggestion), ⑪ 압박(pressure)의 11가지의 복합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27]. 이를 통해 러시아는 인명 피해 없이 크림반도를 짧은 기간에 합병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재귀통제 목적은 ① 적국과 군이 혼란스러운 정보 환경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어 의사결정을 마비, ② 상대방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나 군사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내부적인 불안정을 촉진, ③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통해 적국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을 소모, ④ 정보, 심리, 사이버 영역에서의 우위를 통해 전반적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중국의 인지전 ‘3전(三戰)’

중국은 손자병법 제3편 ‘모공’편에서 말했다 “적과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개념을 전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다[28]. 즉 인간의 마음을 전략적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인지전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중국의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인 차오량(Qiao Liang)과 왕쌍수이(Wang Xiangsui)는 1999년에 발간한 저서 《초한전(超限戰):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Unrestricted Warfare: War and Strategy in the Globalization Era)에서 전통적인 군사전략에서 벗어나 현대의 전쟁에서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경제, 정보, 심리, 테러, 네트워크, 법률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9]. 아래의 표와 같이 초한전의 24전법을 보면 군사, 초군사, 비군사 측면에서의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 초한전 24전법
 Table 1. 24 Warfare Methods of Unrestricted Warfare

군사	초군사	비군사
원자전	외교전	금융전
재래전	사이버전	무역전
생화학전	정보전	자원전
생태전	심리전	경제원조전
우주전	기술전	법률전
전자전	밀수전	제재전
유격전	마약전	언론전
테러전	가상전	이테올로기전

출처: 김동근·김인승(2022). p.167.

중국의 인지전은 초한전을 기초로 한 삼전(三戰)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중군은 삼전(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군대정치공작조례(軍隊政治工作條例)」에 반영하여 조직편성, 교육훈련을 통해 적국과 적군을 와해시키는 공작을 수행하고 있다[30]. 삼전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은 1991년 걸프전을 첨단기술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우주를 기반으로 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C4ISR)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미국이 수행한 정보화전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전략적 사고가 탄생하였다. 대만안보책임자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은 2023년 3월 19일 중국공산당이 최근 및 연간 대만을 겨냥한 인지전을 늘렸으며, 총통입법원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1].

2017년 중국은 19차 공산당 대표자회의에서 미래 미국에 대한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군사혁신 방향은 "지능화군 건설을 통해 지능화전 수행"을 천명한 바 있다. 이상국(2020)은 중국이 지능화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3가지를 연결력, 계산력, 제지권이라고 하면서, '지능화전'의 중심이 되는 목표는 '제지권'이라고 주장했다[32]. 즉 인간의 지력공간 상의 투쟁과 대항에 관한 제해권, 제공권 등 다른 공간에서 제권(制權)에 승수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제지권의 핵심은 인지속도와 인지품질 우위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지권 투쟁방식으로 인간과 기계 지능이 그룹을 이뤄 전장에서 상대방의 인지과정을 간섭 및 통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센서통제와 데이터 간섭을 통해 상대방의 인지고리를 파괴하고 지혜와 지능을 통제해 전장의 제지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중국은 전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여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심리전의 효율적 수행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략지원부대는 삼전(법률전, 여론전, 심리전)을 공식작전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대로 창설되었다. 박남태·백승조 (2021)는 창설배경으로 첫째, 정보화전이 약자(중국)가 강자(미국)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정보화 전장하에서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설되었다 주장하였다[33].

중국 삼전의 전략적 목표는 첫째, 심리전과 여론전을 통해 적의 의사결정을 혼란스럽게 하여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둘째, 여론전과 법률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지받도록 하는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며, 셋째, 국내 여론을 조작하여 중국 정부와 군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유지하며, 넷째, 법률전을 통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분쟁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지금 현재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에서 대만과의 통일과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 시도,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통해 전통적인 군사적 수단 외에도 디지털 회색지대에서 인지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북한의 인지전 수행 능력 분석

1. 배경이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재기통제 및 삼전과 같은 형태의 인지전을 수행한다는 것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이면서 전체주의 국가이다. 특히, 독재체제로 군부를 당이 통제하면서 정치사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6.25전쟁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남한 내부까지 정치공작 및 여론 조작 등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에 전략적 우위를 점한 적이 없으며, 한국이 경제적으로 약진하면서 국가 역량 자체가 비교 불가능하게 되어 한국과 비교우위에서 북한의 유일한 탈출구는 핵 개발과 이를 통한 협박 그리고 인지전과 같은 비물리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다영역적인(다영역) 전쟁을 혼합전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각종 선전도구들, 경제제재, 사이버 능력 등을 모두 발동하여 상대측과 벌리는 대련전"이라고 역설하였다. 김인수(2015)는 북한 노동신문을 인용하여 "최첨단 과학기술 수단의 하나인 컴퓨터가 자본주의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파괴무기가 되고 있다"며 사이버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사이버전 기술 교육과 별도로 서버, 라우터 등 하드웨어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전을 지원하고 있다. 더하여 북한의 사이버전 부대인 전자정찰국(121국)이 심양(瀋陽)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34].

북한의 리재순(1998)은 심리의식 개조방법으로 '정치적 폭로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치적 폭로선전은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대립시키며, 인민 대중을 혁명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정치적 폭로에서 적의 약점을 제때에 잘 이용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궁지에 몰아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치적 폭로를 통해서 적개심 유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선전선동 사업의 일환인 심리전을 인간의 사상과 의식문제를 다루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5].

북한군도 중국인민해방군과 동일하게 '조선노동당'의 철저한 통제와 정치 사향을 관장하고 있는 기구는 총정치국이다. 총정치국은 북한 인민군의 당 조직 집행 기관으로써 당의 결정 심의기구인 '인민군 당 위원회'의 직접적 운영기관이면서 동시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그리고 2019년 신설된 '군정치지도부'로부터의 당적에 대한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의 지도적 영역을 통솔한다. 북한의 '선전부'가 총정치국에서 핵심부서 중의 하나이며, 대남 심리전 전담부대인 '적군외해공작국'과 대남 사이버전을 관장하고 있는 '121부대'가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의 공개된 북한 인민군 정치사상 교육자료와 김정은의 발언 보도 자료에서 "적군외해사업이 현대전에서도 핵심", "대적전파전, 언론전" 등이 다수 언급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북한 인민군도 중국인민해방군과 같은 적군 외해의 개념에서 출발한 인지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새롭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미디어 환경에 최적으로 부합된 여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임상옥(2024)은 북한의 인지전 관련 주요 메시지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36].

표 2. 북한의 인지전 관련 주요 메시지
 Table 2. North Korea's Key Messages Related to Cognitive Warfare

시 기	출 처	내 용
2012. 미상	북한군 학습계강	"적군외해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적공부문 싸움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셨다."
2013. 5.	노동당 간부 음성 기록	"김정은은 노동당 제1서기가 '국제 여론전, 전략적인 보도전을 통해 확고한 주도권을 잡으라'라고 지시했다."
2013. 11. 12.	김정은 연설	"적공일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회주의 제도 옹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다."
2014. 2.	김정은 연설	"사상 일군들은 단수 높은 대적언론전, 전파전으로 적들의 기를 꺾어놓아야 한다."

출처: 임상옥, (2024), 앞의 논문, p. 208.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전략적 목표(Ends)는 변화하지 않았고,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이며, 당면한 목표는 김정은 정권유지와 체제보장이다. 이러한 북한은 베트남전쟁, 중국의 국공내전, 아프리카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과거의 전쟁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현대의 전쟁 및 분쟁에서 회색지대 전략,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등 비물리적 수단에 의한 전쟁에 대해 심도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의 대남 인지전 수행 능력

부형욱(2022)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하이브리드전과 우리의 안보에의 함의'에서 북한은 한국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강화시켜, 대응시간 지연 및 대응 곤란을 유도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인지영역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7]. 북한이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지전 위협 양상을 도출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표 3. 북한의 예상 가능한 인지전 위협에 대한 양상 판단(예)
 Table 3. Anticipated Patterns of North Korea's Cognitive Warfare Threats (Exam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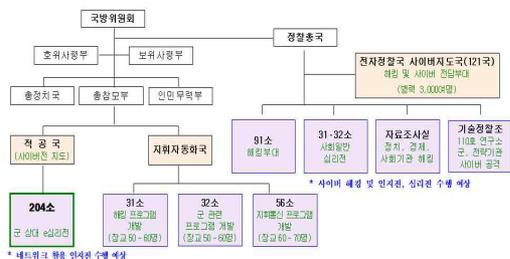
구분	유 형	예 상 양 상	수 행 목 적
평시	심리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도발 및 수사적 위협	불안 조성
	사이버	정부 및 기업전산망 랜섬웨어, 디도스공격	사회 혼란
	공보	탈북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격추위협 성명발표	불안 조성
	전자전	서해 NLL 지역 전자전 공격, 어선 조업 방해	사회 혼란
위기	심리	핵탄두 미사일 탑재 영상 실시간	불안

고조 전환 시	사이버	정부기관, 국방관련 체계 사이버 공격	사회 혼란
	공보	NEO 지원에 대한 미국인 도주 중이라는 성명	갈등 조장
	전자전	접경지역 전방위적인 전자전 공격	사회 혼란
전시 전환 시	심리	딥페이크 이용 미군 철수하는 가짜영상 유포	갈등 조장
	사이버	전방위적 국가 전산망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	사회 혼란
	공보	동맹의 전계기습 공격으로 북한주민 다수 사망	명분 확보
전시	전자전	접경지역 전방위적인 전자전 공격	사회 혼란
	심리	북한의 핵무기 수도권 사용임박, 동맹에 대한 대응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불가피 성명발표	반전 여론
	사이버	한국 및 한국을 지원하는 우방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갈등 조장
	공보	미 전투기 공격으로 인한 평양 내 중국, 러시아 국민 및 외교관 다수 사망 발표	제3군 개입
전자전	지속적인 전방위적(민간 여객기 등) 전자전 공격	사회 혼란	

출처: 필자가 작성함.

북한의 사이버 전사 6,800여 명이 인지전의 최선봉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 전략 증강이 두드러진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사이버·심리전 전담 수행기구 창설로 인지전을 더욱 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121국으로 불리는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과 사이버지도국은 총 3,000여 명의 정예 해킹 및 사이버전 요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3년 6월 25일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한 것도 이 121국이다. 또한, 91소는 김일성 종합대학, 31·32소는 김책공대, 자료조사실은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기술정찰소는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과 연계되어 학생들이 양성되고 있다.



* 네트워크 활용 인력인 수백 여명

그림 3.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인지전 수행 조직

Figure 3. North Korea's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Cyber, Psychological, and Cognitive Warfare Operations 출처: 『지휘관 및 참모를 위한 사이버 보안』, (2016, 국방보안연구소), p.204 참조 재구성

북한의 심리전 운영체계를 알아보면 총정치국 산하에 적공국(적군와해공작국)의 주요 임무는 군의 대남심리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더불어 대남 확성기 방송과 전단·출판물 등의 선전자료 제작과 운용을 담당한다. 적공부(적군와해공작부)는 방어 전연의 4, 2, 5, 1군단에 편성되어 있고, 기타 후방군단과 평방사, 기계화 군단에 대한 유사시에 적공사업 지원을 위한 예비 지원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디도스(DDoS)라고 일컬어지는 사이버 공격을 2009년 한국과 미국의 정부기관 및 기업 등 35개의 주요 웹사이트를 해킹하였고, 2013년에도 언론과 금융기관을 해킹하여 MBC, KBS, YTN 등 한국의 주요 언론사를 공격하여 큰 피해가 있었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전산망을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피해가 있었다[38]. 2017년에도 한국의 포함한 90여 개국의 PC를 워너크라이(Wanna cry) 랜섬웨어에 감염시켜 세계의 대기업, 병원, 정부기관, 국민건강서비스 등의 인프라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39].

또한, 북한은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라 1996년을 기점으로 해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대적인 사이버상 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수행중에 있다. 그 대표적 예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튜경, 조선인포뱅크, 김일성방송대학, 백두넷 등 140여 개에 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40].

최근에는 MZ세대가 주로 사용 중인 유튜브에 북한 유튜브버 '유미'가 '올리비아 나타샤'라는 채널명으로 자신의 평양생활의 일상을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킹크랩 식사준비, 승마강습, 발레, 지하철 이용 등 상류층 일상을 올리고 있으며 짧은 영상 위주로 업로드되는 틱톡도 2023년 1월 이후 운영 중이다[41]. 이와 더불어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러시아 여성은 인스타그램에서 북한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영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체제 선전을 위해 북한이 고용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42]. 이처럼 북한의 최근 유튜브를

활용해 사이버심리전 또는 서사는 최근 주목받는 인지전의 한가지 전술적 접근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인지전과 결합될 때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더욱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북한의 대남 인지전 분석에 따른 시사점

인지전이 두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고, 목표가 되는 대중에게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인지적 공격을 인식하였을 때는 대응하기 너무나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지영역(Cognitive Domain)은 미래 분쟁을 '가슴과 마음으로 얻는 전쟁(battle for heart & mind)'으로 변화시켰다.

러시아의 재귀통제와 중국의 삼전을 보고 배운 북한의 인지전은 국가안보에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인지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한의 대남 인지전 준비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인지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 신설 노력이 필요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인지 차원에서 적의 도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 유사시 운용되는 통합정보작전상황실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43]. 그러나 인지 영역에서의 공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부터 작전 및 전술 제대에 이르기까지 정부기관·군·민간조직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강화된 정보 수집 및 분석'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지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 강화, 첨단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인지전 수행기구와 추구하는 전략과 목표 및 목적 등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 및 교육 확대'이다. 인지전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북한의 노골적인 프로파간다나 허위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증대되었다. 지금 순간에도 네트워크 체계 상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특정 알고리즘에 의한 인지체계를 잠식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 내 '인지 회복력' 강화교육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정보공개 및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인지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대응 전략 강화'이다. 북한의 인지전 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군사기관 등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인지전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인지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인지전을 대응하는 방식이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제적인 동조와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의 인지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인터넷에 너무나 넘쳐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심하다. 가짜뉴스는 가짜임을 알아차릴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지만,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 가짜뉴스라면 이것을 진짜로 믿게 되는 경우 폭발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최근 가짜뉴스는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 등의 발달과 더불어서 딥페이크 기술 등의 발달로 더욱 사회적 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44].

이러한 대응조치 등은 정부 중앙기관이나 군 등 특수한 조직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국내 대기업의 사이버 조직, 민간 해킹 능력자, 소규모라도 국내에서 사이버와 관련 활동 중인 기업, 국내 방송 및 언론단체, 마지막으로 전 세계 대한민국의 지지하는 사이버 조직 및 IT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위해 평시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VI. 결 언

김상현(2022)은 "인지전의 공격 양상이 폐쇄적인 권위주의 체제에서 더욱 수행하기 유용하며, 남·북한의 국방비가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인지 공격을 구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45].

또한, 2024년 6월 19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직접

북한을 국민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며 북러 관계를 격상시켰다. 이 협정은 한쪽이 공격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46]. 이번 푸틴의 평양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 무기 확보라는 단기적 필요성만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아시아판 NATO로 인식하고 있는 한·미·일과 NATO 또는 호주·영국·미국 삼각동맹(AUKUS)의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의 군사력 및 핵 역지력을 유럽과 아시아로 분산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국은 정통적으로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1년에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군사 및 정치적 동맹 조약으로써, 두 나라 간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규정하고,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약은 냉전 시기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북한과 중국은 이 조약 제2조에서 '체약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정치, 경제, 사상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평시 교류를 통해 정치, 군사적으로 활발히 교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2014년과 2022년에 시행하였던 재귀통제(러시아의 인지전)와 중국이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은밀히 시행하고 있는 삼전(三戰: 중국의 인지전)의 개념을 북한도 치밀하면서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고, 현재에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남남갈등 유발, 한미동맹 이간질, 전쟁에 대한 남한사회 위협, 사이버 공격을 수단으로 인지전을 치밀하게 시전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인지전은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지차원에서 어떤 목표와 방법, 수단을 사용한 것인지, 추가하여 해당 전쟁 국가가 인지전을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였는지는 명확히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북한·

중국·러시아의 군사전략 및 세세한 조직의 실제 수행하는 임무 등은 국가기밀 사항으로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국가자료나 문서를 제시한다는 것은 제한이 되어 상당 부분 선행 연구자료나 뉴스자료 등의 이슈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근거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지전이 현대전쟁에서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나, 한국군의 인식은 먼 미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지 공격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미군의 교리를 답습하여 교리적 논리를 앞세워 정보환경에서의 인지차원이라는 범주로 인지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북한의 인지 공격에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대응할 시간조차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ferences

- [1] Kim, Won-tae. "The Seven Military Classics." Seoul: Book and Tree, 2016.
- [2] Oh, Se-jin. "Psychology." Seoul: Hakjisa, 2005.
- [3] Lee, Jung-mo. "Cognitive Psychology and the Brain." Seoul: Science and Philosophy, 1999.
- [4] Yoo, Yong-won, Shin, Beom-chul, and Kim, Jin-a. "North Korean Military Secret Report." Seoul: Planet Media, 2013.
- [5] Choi, Hyun-seok. "All Human Emotions." Paju: Seohaemunjip, 2011.
- [6] Republic of Korea Army Headquarters. "Army Vision 2050." Gyeryong: ROK Army Headquarters, 2021.
- [7]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White Paper 2022." Seo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2.
- [8] Kwon, Oh-kook. "Case Study of North Korea's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Focusing on Leaflets Distributed in 2016." Journal of Politics and Information Studies, vol. 27, no. 1, 2024.
- [9] Kwon, Jun-taek, and Allison Graepe. "Prospects for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alysis of the 'DPRK-China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The Korea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2022.
- [10] Kim, Kang-mu. "The Impact of Cognitive Biases o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Application of Structured Analytic Techniques

- for Debiasing (From the Perspective of Intelligence Analysis)." *Journal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vol. 14, no. 2, 2021.
- [11] Kim, Dong-hyuk. "Soviet Adaptation of Cybernetics Theory: From Scientific Theory to Social Management Discourse." *Sa-Chong*, vol. 91, 2017.
- [12] Kim, Bo-mi, and Oh, Il-seok. "North Korea's Cyber Threats in the Kim Jong-un Era and Major Countries' Responses." *INSS Strategy Report*, no. 147, Nov. 2021.
- [13] Kim, Sang-hyun. "A Study on the Attack Patterns and Countermeasures of Cognitive Warfare: Focusing on the 2014 Annexation of Crimea and the 2022 Ukraine War."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vol. 32, no. 4, 2022.
- [14] Kim, In-soo. "Evaluation and Prospects of North Korea's Cyber Warfare Capabilities." *Unification Policy Studies*, vol. 24, no. 1, 2015.
- [15] Kim, Jung-han. "A Study on Information Warfare Targeting the Enemy's Cognitive Domain." MA Thesi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20.
- [16] Kim, Jin-ho, and Choi, Young-chan. "Development Direction of ROK Armed Forces' Cognitive Warfare for Future Warfare: Concepts, Deployment Patterns, and Strategic Responses."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39, no. 3, 2023.
- [17] Kim, Jong-ha, Kim, Nam-chul, and Choi, Young-chan. "North Korea's Gray Zone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Concept, Means, and Prospects." *Korean Journal of Military Affairs*, vol. 10, no. 1, June 2021.
- [18] Ri, Jae-soon. "Introduction to Psychology." *Pyongyang: Comprehensive Publishing House*, 1998.
- [19] Park, Nam-tae, and Baek, Seung-jo. "Security Implications of Chinese Strategic Support Force's Cyber Warfare Capabilities for Korea."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131, Spring 2021.
- [20] Boo, Hyeong-wook. "Hybrid Warfare in Ukraine and Its Implications for Our Security." *KIDA*, 2022.
- [21] Eom, Gu-ho.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June 19 North Korea-Russia Summit for the Korean Peninsula." *Chosun University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Studies*, no. 42, 2024.
- [22] Yoon, Min-woo. "Case Analysis of North Korean YouTube Propaganda Utilization as Part of Cognitive Warfare." *Korean Journal of Criminal Psychology*, vol. 19, no. 3, 2023.
- [23] Lee, Sang-kook. "A Study on China's Intelligent Warfare Discussion and Preparation."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vol. 63, no. 2, 2020.
- [24] Lee, Jung-ha. "Information-Psychological Operations and Reflexive Control of the Russian Federation." *Journal of Western History in Korea*, vol. 66, 2022.
- [25] Lim, Sang-wook. "North Korean Military's Cognitive Warfare and Countermeasures as Seen Through China's Three Warfares." *Journal of Spiritual Force Research*, no. 77, 2024.
- [26] Choi, Young-chan. "Future Conflicts and New Media: Expansion of Conflict Domains, Evolution from Physical to Cognitive Domains, and Multiplication of the Two Domains." *ROK Army Military Science Review*, 2022.
- [27] Choi, Hyun-ho. "Cognitive Warfare, an Attack on the Human Domain: Inducing Human Behavioral Changes by Revealing Vulnerabilities." *Defense Forum*, vol. 23, no. 10, 2023.
- [28] Ha, Min-soo. "Exploring Cognitive Biases That Hinder Rational Problem Solving and Methods for Debiasing Through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2011.
- [29] NATO. *Cognitive Warfare: An attack on truth and thought*. 2020.
- [30] Innovation hub. *Warfighting 2040 project report*.
- [31] Claverie, B., et al. "Cognitive Warfare: The Advent of the Concept of 'Cognitics' in the Field of Warfare." 2022.
- [32] Bernal, Alonso, et al. *Cognitive Warfare: An attack on Truth and Though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2020.
- [33] Claverie, Bernard, and François du Cluzel. "The Cognitive Warfare Concept." 2021.
- [34] Cheatham, Michael J., et al. "Cognitive Warfare: The Fight for Gray Matter in the Digital Gray Zone." *Joint Force Quarterly*, no. 114, 31 July 2024.
- [35] Backes, Oliver, and Andrew Swab. "Cognitive Warfare: The Russian Threat to Election Integrity in the Baltic States." 2019.
- [36] Thomas, Timothy L. "Russia's Reflexive Control Theory and the Military."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no. 17, 2004.

- [37] Hung, Tzu-Chieh, and Tzu-Wei Hung. "How China's Cognitive Warfare Works."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2020.
- [38] Kim, Sun-ho. "<War and Media> Internet, Control or Utilize: Social Media, Between Peace and War (Part 2)." *Korea Defense Daily*, 18 Dec. 2019.
- [39] Park, Kyung-hoon. "'North Korean Goddess YouTuber Yumi' Promoting North Korean Regime Can't Be Seen in South Korea." *Seoul Economic Daily*, 20 Feb. 2024.
- [40] Lim, Seok-hoon. "[Manpasikjeok] China's 'Cognitive Warfare'." *Seoul Economic Daily*, 19 Mar. 2023.
- [41] Yang, Wook. "Efforts to Block North Korea's Cognitive Warfare... Joint Chiefs of Staff's Quiet Response." *Economy Chosun*, no. 496, 20 June 2023.
- [42] Yang, Ji-ho. "North Korea 'Temporarily Suspends Trash Scattering. Will Re-scatter 100 Times If Leaflets Are Found'." *Chosun Ilbo*, 2 June 2024.
- [43] Choi, Yu-chan. "North Korea Employs Even Russian Women for SNS Propaganda." *MBC News*, 4 Mar. 2024.
- [44] Choi, In-young, and Shin, Chang-yong. "Putin Leaves Pyongyang After '21-hour North Korea Visit' with Kim Jong-un's Send-off." *Yonhap News*, 20 June 2024.
- [45] Han, Do-hyung. "Expert: 'We Should Launch Cognitive Warfare Offensive to Prevent North Korea from Using Tactical Nukes'." *Radio Free Asia*, 30 June 2023.
- [46] Liu, Dengliang. "Russian State Duma Chairman: Ukrainian President Zelensky Has Left Kyiv." *China CCTV*, 26 Feb. 2022.